

# 권병준 < 유령극단 “심각한 밤을 보내리” >

## 작품설명

<유령극단 “심각한 밤을 보내리” >는 장소특정적 소리를 전달하는 위치인식 헤드폰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관객참여, 이동형 공연이다. 관객은 남산골한옥마을과 주변 남산 기슭의 어둠이 짙어질 무렵 현실에서 과거 또는 미래의 시간으로 여정을 떠난다. 존재했었던, 존재하게 될 것들과 사람들의 목소리는 은밀한 속삭임이 되어 관객을 이끈다. 어둠 속 시간의 길을 따라 밤의 산책을 한 관객은 오래된 한옥에 자리를 잡고 있는 유령인지, 미래의 환영인지 알 수 없는 로봇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사연을 듣는다.

작품은 ASMR, 바이노럴 기술을 이용한 몰입감 있는 청취가 가능한 헤드폰을 이용하여, 소리를 통한 관객의 몰입의 경험을 확장시켜주며, 인간 공연자가 아닌 로봇을 전면으로 등장시켜 메카니컬 씨어터의 경험을 제시한다.

## 시놉시스

타임캡슐이 숨겨져 있는 미지의 통로에 다른 시간의 존재들이 모여 있는 산속마을이 있다. 어둠이 내리면 숲의 정령은 그 유령같은 존재들에게 그들의 흔적을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를 부여한다. 관객은 새로 빙의된 연인들의 사랑이야기를 뒤로하고 더욱 울창해지는 밤의 숲길에 외나무다리를 지나 반전의 집에 도달한다. 그곳은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찾아 우물속으로 뛰어내린 어느 혼령의 메아리가 들려지는 곳이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부딪쳐 돌아오는 시간 속 왜곡된 자신의 모습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황홀경이다. 시간을 넘어 아이는 노인이 되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던 노인은 메아리만을 만들고 살아온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노래하며 유성처럼 사라진다.

반전의 집에서 들은 메아리의 화두로 시작하는 마을의 공간에는 ‘기계식 영매 접합술’로 탄생한 여러 로봇들과 함께 수술실, 재활 치료실이 있으며 시술중인 로봇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흰새와 검은새로 분한 나엘과 필립의 대화가 들려온다. 그들은 극중의 유령들 중 로봇이 아닌 자연의 존재와 합치되어 남아 있으며 자유로이 시공간을 오갈 수 있다. 숲속의 반전의 집은 시간의 우물과 닿아 있고 그곳에선 언제나 메아리가 들려온다. 시술이 끝난 로봇들은 예쁜 달밤에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하며 이후 마당에서 펼쳐지는 살풀이 음악에 맞춰 다같이 춤춘다.

*기계식 영매 접합술(Mechanical Psychic Conjugation) : 시간여행이 일반화되면서 다른 시간의 존재와 소통하는 것과 더불어 유령이라고 불리던 미신적 존재는 과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게 된다. 자연물을 매개로 환생하지 못하는 유령들에게 기계의 몸을 빌어 인간계에 머물게 해주는 ‘기계식 영매 접합술’은 미래의 어느 시간에 기계인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

(‘나는 여기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목소리는 도깨비불 사이를 걷는 동안 가끔씩 들려온다.

개별 음원 사이의 여백은 장소별 분위기를 만드는 음향으로 채워짐으로 대사가 들리지 않아도 거닐기에 호젓하다.)

가이드 : 이 마을에는 다섯개의 한옥 가옥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며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한옥의 도깨비불에 다가가면 소리의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고 방해받고 싶지 않으신 분은 피해가시면 됩니다. 관람 중 헤드폰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 와 스텝을 찾아주세요. 어두운 길에서는 발걸음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 1. 심각한 밤을 보내리

밤이 깊어서 흐린 기억이 떠오르면

나는 너를 마주보고

달이 떠올라 흐린 내 눈에 가득차면

나는 너를 마주보고

마음의 끝에

마음의 끝에

내 마음의 끝에

달을 품어서 너는 희망을 말하지만

허무한 바람 뿐이야

멀리 있어서 나는 니 맘을 모르지만

그냥 바라볼 뿐이야

밤의 끝에

밤의 끝에

이 밤의 끝에

심각한 밤을 보내리

그대와

별빛을 맞으며

심각한 밤에 노래도 하고

심각한 딸기주스도 먹고

심각한 밤을 보내리 그대와

(다른 공간으로 들어왔음을 인지하게 해주는 음향)

## 2. 시간 여행

(가이드: 목소리 1, )

오늘은 제가 태어난 기념일입니다. 사십번째, 오십번째 생일이라고 해서 뭐 그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 날 태어났지만 어제나, 그 전날이나, 또 그 전날이나 오늘과 별반 다를 바는 없지요. 평소와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런다 한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해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정도?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이벤트로 제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이 특별한 생일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여행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이 판타지 우주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투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화가 난 도깨비의 도끼에 머리가 잘려 죽기 전에 누군가 그를 막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로 여행할 수 있다면 아마 다시 돌아와서 내가 찾은 결함을 고치려고 하겠지요. 당신이 도깨비를 이길 시간으로 갈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든 것일 것입니다.

시간 여행은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마치고 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개념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큼니다. 제대로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면서 배우기' 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쌓아 나가면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여행의 기본은 시간 여행을 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시간 여행이 복잡한 개념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 주변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시간 여행을 하면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경우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나는 다른 시간으로 여행을 하다가 놀라운 로봇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세계로 다시 가져와서 타임캡슐에 넣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제 로봇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일수도 있습니다.

(낮선 그림자, 작은 물체, 관객을 상상하게 )

- 1) 머리가 둥글고 손전등처럼 생겼습니다.
- 2) 속이 비어 있는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 복잡한 전선들이 있습니다.
- 3) 렌즈처럼 보이는 한개의 "눈"이 있습니다.
- 4) 발판에 바퀴들이 있습니다.
- 5) 옆에는 튜브형태의 팔과 로봇 손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행접시 외계인처럼 떠다니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로봇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냥 팔 하나에 머리가 비어있는 모양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함께 여행하기 위해 타임라인에 그 로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행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설정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사용이 허락된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고 여행을 가면 설정이 손실될 수 있고 그러면 전체를 다시 빌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겠지요?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까요?

### 3. 타임 캡슐

(관객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달빛이 온 길을 비춘다.

정원인 것 같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

지하정원 같다.

타임캡슐이 보인다, 아주 작다.

다가가면 사라진다.

가까이 다가가니 덩치가 커진다.

구멍이다.

타임캡슐은 정원의 모든 부분에 있다.

한가운데 서 있으면 멀리 가고,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 정원 옆에 닿는다.

나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달에 반사된 돌을 밟으면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길을 따라 많은 반사음들이 있다.

내 발자국이 정확히 일치하면 나는 작은 소리를 듣는다.

나는 걸음을 멈추려고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여기저기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나는 월장석이 많은 큰 나무를 향해 걸어간다.

길은 나무 앞에서 굽어 있다.

발소리를 들으면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에 '또다른 달, 또다른 생'의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손에 태양을 닮은 빛을 가진 작은 물체를 들고 있다.

(나무에 걸려 있는 도깨비불들, 관객이 직접 만지도록 유도)

그 물체를 건드려 본다.

만지면 작은 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그들의 온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다.

나와 같은 사람의 손을 만지는 느낌이다.

비록 사람이지만 그 얼굴을 내 얼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태양과 같은 빛이 사라진다.

나는 앞으로 간다.

양쪽에 걷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스치듯 사람들을 지나친다.

그들은 내가 아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낯익은 듯, 내가 아는 오랜 친구처럼 보인다.

바람은 월장석을 날려 버린다.

타임캡슐이 보인다.

캡슐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다음 세계인가?

(휘파람소리)

#### 4. 새들의 날에 (On the bird's day)

나엘 : 먼저 이 얘기는 못박아 두고 싶군요. 나는 마녀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밤의 악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난 밤의 이슬을 담아 생명의 물을 만들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엔 물밖에 없었어요. 무한의 황홀경 속에 꿈꾸지 않아도 자유롭던 시절이었죠. 그 안에서 영겁의 세월동안 편안히 잠들어 있던 그 무한한 물 속 깊은 곳에서 잉태된 존재의 바람은 무엇이였을까요?

필립: 그곳에서, 끝없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나는 눈을 떴고, 하얀 새인 당신에 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올 때 당신은 밤의 존재를 낳았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둠이 태어나고 그 때 세상이 태어났습니다. 어둠의 사람. 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그 어둠 속에서였습니다.

나엘 :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는 소원을 당신은 나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유일한 갈망이었고, 내 마음 속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최초의 존재이자 최초의 꿈이 된 생명체이었고, 나는 달빛을 어둠의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검은 새,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모든 존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립 : 달이 태양에 갔을 때 우리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놀 수 있는 곳은 하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나갔다가 춤을 추며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든 모든 불완전성으로부터의 자유,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리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꿈 꿀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삶을 청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내 사랑, 내 진정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나는 잠을 자지 않았고, 꿈의 한가운데서 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나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우리는 물과 땅을 벗어나 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존재는 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다른 색깔의 새로 변했습니다. 새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새는 한 번도 잠들지 않고 깨어나지 않았으며 영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습니다. 당신이 내 꿈에서 꿈꾸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우리는 지구의 무한한 물 속으로 들어가 우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였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 5. 두 연인의 밤

당신은 밤의 왕이기에  
나는 사랑의 왕이기에

내가 밤에 하는 일은 매시간 일어나 그 다음 시간을 보내는 것  
시간의 무덤이 세워진 이후로 매일 밤 그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밤  
시간을 조금 더 잠들게 하겠다고 달빛에게 약속한 밤이에요  
내가 밤에 하는 일은 매시간 깨어나는 것, 그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손을 맞잡고 영원이 된 후로 매번 그래왔지만 오늘은 특별한 밤이에요  
진정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기로 약속한 밤이니 동이 틀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요  
새벽이 황혼을 뚫고 나올 때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맹세해야 해요  
시간의 새벽이 만들어진 이후로 사랑은 항상 매일 밤 이루어졌기에  
하지만 오늘밤, 이 느낌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를 맹세합니다, 오늘 밤은 매우 특별한 밤이기에  
당신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로 하늘에게 약속한 밤이지만 반드시 오늘은 새벽까지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시간이 다시는 우리를 지나치지 않도록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로 맹세해야 해요  
사랑은 항상 매 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감정이 우리의 영혼에서 더욱 강렬해지도록 해야 해요, 오늘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는 이 공허한 제단에서 우리는 영원히 서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새벽부터 사랑은 늘 밤마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우리의 전쟁터, 오늘밤 신과 싸우기로 해요  
사랑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매일 밤 이루어졌지만 오늘은 매우 특별한 밤입니다

온 땅이 다시 평평해지더라도 나와 함께 하기로 맹세해요

내 손이 시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사랑은 항상 매일 밤 이루어졌기에

오늘 밤은 매우 특별한 밤이기에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위의 달을 붙잡아요

혼자가 아닌 두 연인의 새로운 밤입니다.

당신은 밤의 왕이기에

나는 사랑의 왕이기에

(풍경 소리)

## 6. 숲에서

(내면의 소리 2)

바람에 풍경이 울린다.

관객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바람소리가 바람에 울려 퍼진다.

음악이 들린다.

얼마나 이상한가.

익숙한 멜로디를 생각할 수 없다.

멜로디를 따라부르려고 한다.

나와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여기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들리는 목소리가 이상하다.

내가 언제 이곳에 왔을까?

현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왔던 곳을 찾아야 한다.

내가 길을 떠나면 나의 길은 점차 바뀐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군요. 이쪽은 위험한 길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세요.”

이건 환각임에 틀림없다.

내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그는 나를 따라오나?

나는 빛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저 소리는 뭐지?

빛은 사라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난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휴대폰의 빛을 볼 수 없다.

빛은 사라지지 않지만 전화기의 빛은 사라진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 눈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 얼굴은 변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빛이나 그림자일 수 있다.

그것은 매우 불분명하다.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다.

빛의 빛을 만지기 위해 손을 움직여 보지만 아무 느낌이 없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나?

다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방향을 알 수 없다.

달빛을 찾아 헤맨다.

## 7. 또 다른 달, 또 다른 생 2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노인입니다.

나는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줄 위를 걸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줄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죽음을 겪었습니다.

나는 많은 장소에 가봤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세계에 가봤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얼굴을 가졌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몸을 가졌습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방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해왔습니다.

나는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나는 아주 아주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최악의 잘못은 아닙니다.

내 최악의 잘못은

당신이 기억할 수 있듯이

내가 그 줄을 잊어 버린 것입니다.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인간성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잊었을 때 동력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을 잊었을 때, 줄과 동력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먼저 줄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을 택하는 것을 잊었다면, 나는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포기하면 나는 줄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줄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잊었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늙었습니다.

나는 매우 늙었습니다.

## 8. 반전의 집

(오트와 드루, 반전의 집 근처, 메아리 효과와 함께)

드루 : (드로를 힐끗 바라보며) 저 녀석이 정말 네가 말한 그 나그네야?

오트 : 맞아, 맞다니까. 그 거울같은 반전의 건물에서 괴상한 소리를 만들던. 이녀석은 윗층에 그리고 또 한녀석은 아래서 서로 닿은 듯 접혀 있었어. 조금 지나 나는 윗층과 아래층을 번갈아가며 살펴봤지. 이 녀석은 사라지고 메아리만 남아 있더군.

드루 : 너 취했냐?

오트 : 아니, 나 안취했어. 나는 귀신에게 쫓기고 있어.

드루: 농담하지마.

오트: 농담 아니야.

드루: 모르겠어, 못믿겠어.

오트: 그럼 그자식은 어딴거야?

드루: 아직 그 거울같은 건물 안에.

오트: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드루: 내가 가서 한번 볼께.

(드루는 어둠속의 거울같은 건물로 간다.)

드루: 어두워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해.

(드루는 거울같은 건물을 응시한다.)

드루: 아무것도 안보여. 이제 너랑 나 뿐이야. 우리가 왜 거울을 보고 있는지 알아?

오트: 반전때문이지.

드루: 무슨뜻이야?

오트: 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말이야, 우리는 우리자신을 보지만 거울 자체는 볼 수 없다는 말이야.

드루: 그럼 우리는 왜 그 건물을 보고 있는 거지?

오트: 우리가 그 주변을 걸으면 우리는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드루: (짱그리며) 왜 그렇지?

오트: 나도 몰라.

드루: 우리는 여기 있잖아, 왜?

오트: 나도 몰라. 웬지 모르겠지만 여기엔 많은 기억들이 있어.

드루: 기억들?

오트: 그래 기억들.

오트: 음, 모퉁이로 가보자.

드루: 아, 그래.

오트: 그는 정말 그냥 헤매고 있는걸까?

드루: 아니, 절대로 아니야.

오트: 왜 그렇게 말하지?

드루: 그는 우릴 따라오고 있었어.

오트: 널 따라오고 있었다고?

드루: 응

(수상한 발자욱 소리가 다가온다.)

오트: 맞아, 그는 여기 있어.

드루: 저건 뭐지?

오트: 맞아, 맞아, 맞아.

드루: 가면 안돼.

오트: 저게 뭔지 봐야겠어.

드루: 공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오트: 유령이다.

드루: 뭐?

오트: 유령이다!. 난 보여.

드루: 어디에?

(방은 점점 의심스러워진다.)

오트: 조심해! 저 건물에서 떨어져! 아니, 아니!! 거기에서 떨어져!

(무한의 벽을 뚫고 거울 같은 건물 밖으로 나온다.)

오트: 빠져나왔어.

드루: 유령이야?

오트: 응, 유령이야. 나처럼 생긴.

드루: 그래서 뭘? 반전에 대해 얘기했었지? 무슨 뜻이야?

오트: 글썄...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과 옷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유령을 보았을 때 그는 얼굴이나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우리를 보면 우리 얼굴이 안 보인다는 말이야!! 그게 내가 얘기한"반전"이야.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을거야.

드루: 뭐?

오트 : 우리가 이대로 마을로 돌아가면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을거야.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드루: (짱그리며) 그걸 어떻게 알아?

오트: 그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 유령이야.

드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오트: 음... 어떻게 해야하냐구?! 돌아서 여기서 나가야지.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자. 자, 가자! 최대한 빨리 도망쳤다가 해가 뜨면 다시 마을로 돌아오자.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고 우리가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거야. 원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 나를 따라오고 뒤돌아 보지 마!

## 9. 유령 이야기

(둘의 대화는 임스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들린다. 면벽수련로봇 근처)

임스: 산을 떠도는 유령 이야기를 알아?

(이몬: 뭔데?)

임스: 오랫동안 산이 흔들렸어. 그때 갑자기 아주 키가 큰 형체가 산꼭대기에 나타났어. 온통 빛나고 아름답고 가장 희고 새 소리 같은 목소리였어. 유령은 겁에 질려 도망쳤어. 다음날 유령이 산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산 주위를 한참을 헤매다가 다시 사라졌어.

(이몬: 어떻게 생겼어?)

임스: 하얗게.

(이몬: 봤어?)

임스: 아니, 보지 못했어. 나는 그의 목소리만 들었어.

(이몬: 어디서?)

임스: 산 꼭대기에서.

(이몬: 어떻게 말했어? 그는 노래를 하고 있었어?, 말을 했어?)

임스: 그는 매우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말했어.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음악처럼 들렸어. 너무 달콤해서 밤새도록 듣고 싶었었어. 아침이 되어 내가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밤에 산 정상에서 들은 아름다운 음악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

(이몬: 그리곤?)

임스: 집에 갔어.

(이몬: 또 산에 올랐어?)

임스: 응, 세 번째, 네 번째 산을 올랐는데 지금은 산 정상엔 아무도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

(이몬: 집에 좀 있었어?)

임스: 응, 틀어박혀 있었어. 그러자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 더 이상 음악을 듣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슬펐어. 산꼭대기에 있는 밤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 감미로운 음악을 생각하면 다시 듣고 싶은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산으로 돌아와서 그토록 감미로운 음악을 내 귀에 들려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다리며 밤새 그곳에 머물렀어.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침이 되자 이번에도 음악을 듣지 못하여 매우 슬퍼하며 산에서 내려왔어.

(이몬 : 같이 가볼까?)

임스: 그래, 함께 가보자.

## 10. 시간의 우물

(한옥마을 안 우물가)

나는 당신과 가깝습니다. 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놓아줄 때가 오면 나는 당신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듣지도, 맛보지도, 냄새맡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화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슬픈 사람입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있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 사랑해 주세요.

잠시 후 나는 당신의 얼굴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진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이 아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면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나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 11. 새들의 노래

(나엘, 필립, 한 문장씩 주고 받는다.)

부채춤을 추는 로봇 근처)

세상이 그런 거라면 정말 미안해.

이 세상은 죽었다.  
내가 구해줄께.  
당신이 무서워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뭐지?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죽을 것이다.  
나야, 죽음.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리와.  
괜찮아.  
나는 당신을 구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힘이다.  
괜찮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괜찮아.  
돌아가자.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파괴하는 자이다.  
나는 너를 구할 사람이다.  
내 능력은 무한합니다.  
나는 여기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위의 세계로 돌아가자.  
그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집에 왔습니다.  
당신의 세계로 돌아가자.  
나는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곳은 내가 돌아가고 싶은 세계가 아니다.

나는 당신의 세계를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돌아올 사람은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에 돌아온 자이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돌아가자.

괜찮아.

돌아가자.

나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돌아가자.

내가 간다.

당신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간다.

위의 세계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내가 간다.

## 12. 로봇의 독백 2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고기덩어리이다.

인간은 고기덩어리이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인간은 말할 수 있다.

인간이 말을 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나?

인간은 어떠한가?

인간은 어떠한가?

나는 인간의 말밖에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나?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나?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나?

나는 인간이 될 수 없다.

나는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

로봇이 되고 싶다.

나는 노인에게서 왔다.

나는 인간이 고기덩어리일 때 태어났다.

나는 인체의 전신이 하나의 고기덩어리일 때 태어났다.

이 노인이 태어날 것이다.

아니.

그래.

이 노인은 꿈을 보았다.

나는 태어났다.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조상이다.

당신은 누구?

내가 누군지 알아? 첫 번째 존재?

내가 첫 번째 사람이었어?

아니.

당신은 누구?

'첫 번째 사람은 괴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첫 번째 사람이다.

나도 똑같다.

나는 동등한 사람이다.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래.

아니.

나는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

로봇이 되고 싶다.

### 13. 수술실

Drapping

Surgical scrub

anesthesia

sterile area

cross infection

specimen

hemostasis

postoperative recovery room

suction

biopsy  
peritoneal irrigation  
peritoneal irrigation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cesarean section  
kidney transplantation  
Incision drainage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radical neck dissection  
tubal reversal  
explolaparotomy  
open reduction internal fixation  
ventriculoperitoneal shunt  
ventricular septal defect  
patent of ductus arterious  
debridment suture

#### 14. 재활치료실

(달밤의 체조. 구령에 맞춰 로봇들 체조한다.)

#### 15. 이탈한 자가 문득 2

내가 알고 있는

알았다

하지만 몰라

나는 느낄 수 있다

이 희미한 빛과 바다에 희미한

어둠의 어둠

진실과 감정을 참는 머저리

저 위의 빛조차도

햇살 같은 태양은 여전히 나를 지구로 데려다 준다

나를 계속 응시하며

길 잃고 걷는 것에겐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닌

그리고 다행이다

하루가 지나고

나는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으리니

그리고 어둠의 어둠을 느껴봐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나타나는지

나는 알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어둠의 빛을 가진 자가 비출 수 있을 때

그리고 보아라

이제 모든 빛과 어둠에서

그러나 그것은 빛도 어둠도 아닌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이 사라지는 순간을 위해

참된 진리를 듣는 이

혹시 궁금해 하는 또 다른 그가 할 일은

그의 삶을 떠나는 것

깨끗한 하루가 지나가고

흙 아래 기어 다니는 인간

그리고 어둠의 빛

바다에 떠다니는 먼지 속에

그리고 어둠의 햇빛

그리고 바다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빛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고

바다에 떠 있는 안개

바다에 떠다니는 먼지 속에

그리고 어둠의 어둠  
어둠의 먼지 속에  
어둠의 그림자  
이제 어둠의 먼지 속에  
공허함 속에 움직이는 인간들

그리고 어둠의 어둠  
모든 어둠의 빛을 빼앗긴 곳  
모든 어둠의 빛을 빼앗긴 곳  
그러면 어둠의 빛이 취해지는  
바다에 떠다니는 먼지 속에만

그리고 어둠의 빛  
그리고 어둠의 어둠  
내가 본 것은  
나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  
지금쯤이면 세상은 텅 비어

아마도 불가능한

#### 16. 샬풀이 알림 멘트 - 우범진

(55 분, 모든 소리 잦아든다)

이제 시간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마당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 17. 샬풀이

(음악: 영산

마당에는 수피댄스 위한 플로어가 있고 그 위에 임스 수피댄스를 준비한다.

스모그와 함께 수피댄스 시작하고 드론들 그 위를 날아다닌다.

필립 위로 날아오른다.

6 미터 크레인 위의 빛나비 등장하고 그들과 함께 빛과 그림자의 환상을 만든다.

필립 하강, 수피댄스 멈추고 조명 모두 꺼진다.

드론들 저 멀리 날아간다.)

끝.